

“2024 계엄세대로의 새로운 세대 통합 이룰 것”

SOCIETY

2025년 3월 13일 목요일

제45주년 5·18기념행사위 민주묘지서 출범 추모·계승·연대로 미래 열어가는 축제 구성

“80년 5월 광주 대중 세상의 꿈을 전할 것입니다.”

제45주년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가 12일 오후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 등에서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출범식은 오병윤 상임행사위원장과 행사위원장단, 강기정 광주시장,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각 시·도별 행사위원회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모역별 분향, 헌화·묵념, 출범 선언문 낭독, 기념공연, 오월 광주 초대 퍼포먼스 등이 진행됐다.

출범식 전 행사에 참여한 이들은 민주묘지 1·2구역과 민족민주열사묘역으로 이동해 합동 참배를 진행했다.

이날 출범 선언문은 조창익 전남 5·18 행사위원장, 최정우 서석고 학생, 신승환 전남대 총학생회장, 신혜선 광주전남대학 생진보연합 대표가 낭독했다.

이들은 “1980년 5월은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말살하며 국민을 학살한 국가 권력에 목숨 걸고 싸웠던 숭고한

희생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024년 겨울 우리는 ‘비상 계엄’이라는 이름으로 고통을 겪었다”며 “1980년 5월을 경험했던 이들에게는 악몽이었고, 오월에 빛진 마음을 지닌 이들에게는 맨몸으로 장갑차를 가로막을 용기를 내게 했던 밤이었다”고 덧붙였다.

또 “5·18의 희생으로 얻은 일상의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알게 됐다”며 “2025년 5월은 세대, 성별 등을 넘어 2024년 계엄을 함께 겪은 ‘계엄세대’의 새로운 세대 통합을 이뤄내고, 오월 정신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심장이자 뿌리임을 다시 한번 증명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45주년 행사위의 포부 와 상상력은 어느 해와는 다르다. ‘오월 광주, 민주주의 대축제’를 통해 80년 5월 희생자들에 대한 깊은 추모를 품고 오월 정신을 계승하고 구현하겠다”며 “과거와 미래를 잇고 나와 나를 이으며 시민들의 다채로운 열망을 오월 광주로 모을 것이다. 80년 5월 광주 대중 세상의 꿈을 통해



12일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5주년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 출범식’에서 강기정 광주시장과 오병윤 상임행사위원장이 참석자들이 민주주의 사수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새로운 세계를 전망할 것이다”고 각오를 다졌다.

또 출범식에서는 광주 민주평화정신을 기리고 오월 영령에게 바치는 진혼곡을 비롯해 오월 광주의 민주주의 희생정신이 세대를 넘어 계승되고 있음을 표현한 공연도 진행됐다.

2시간여 이어진 출범식은 참가자들의 입을 위한 행진곡 제창과 ‘오월 광주 초대

퍼포먼스’로 끝을 맺었다.

한편, 제45주년 5·18기념행사 표어(슬로건)는 ‘아! 오월, 다시 만난 오월’이다. 5·18을 주제로 한 소설 ‘소년의 온다’의 책장을 넘기는 손길에도, 계엄을 막으려 국화로 달려간 발걸음에도, 추운 겨울 광장을 지켜온 응원봉에도 80년 5월이 살아 숨 쉬고 있었음을 담고 있다. 또 ‘오월은 용기와 연대의 상징이자 대중의 표상으로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상상력의 연원’이라는 뜻이 담겨있다.

올해 5·18행사위는 ‘5·18정신 헌법전문수룩’을 포함한 개헌으로 민주주의의 공고화, 광주 모두가 함께 준비하는 민주주의 대축제 구현, 추모·계승·연대로 미래를 열어가는 시민축제 구현 등을 기조와 방향으로 삼았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12일 광주 동구 지산동 광주변호사회관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기자회견에서 하재욱 광주변호사회장과 회원들이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대통령 탄핵 결정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광주변호사회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 촉구” “헌정질서 바로 세우고 민주주의 수호해야”

광주지방변호사회가 12일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대통령 탄핵 결정을 촉구했다.

광주변호사회는 이날 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고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한다는 주권자들의 염원을 받들어 헌법재판소가 조속히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결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하재욱 회장 등 헌정질서 회복을 염원하는 광주지방변호사회 회원 8명이 참석한 이번 기자회견은 사국이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법률가들이 사회 분열을 조율·수습하지 못하고 더욱 부추기는 것에 대해 통감하고, 국민들에게 의견을 밝히기 위해 마련됐다.

광주변호사회는 “오늘은 위헌적인 12·3계엄 선포 및 내란 이후 100일째 되는 날”이라면서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

은 윤석열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을 했고, 검찰은 즉시항고를 포기하는 등 국민의 불안을 더욱 가중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에 광주변호사회는 대한민국의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마지막 보루인 헌법재판소의 결단을 요구했다.

광주변호사회는 “수 차례의 심리기일을 통해 확인된 사실들은 대통령 탄핵 사유가 차고 넘친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줬다”면서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불안과 혼란을 잠재우고, 헌정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신속하고 단호하게 탄핵 결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을 지체 없이 탄핵함으로써, 시민들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공고히 했음을 민방에 알릴 수 있도록 그 본래 책무와 역사적 임무를 다해야 한다”고 외쳤다. 임영진 기자 looks@

“위협하면 제압”... 호신술 익히는 구급대원들

광주·전남 최근 5년간 45건... 대다수 벌금 처분 전문가 “119대원 사기 저하 우려... 엄정 처벌을”

응급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원들이 영문도 모른 채 폭행을 당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현장 대원들은 언제, 어디서 날아들지 모르는 폭력을 피하고자 ‘호신술’까지 익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15면

12일 광주·전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구급대원 폭행 건수는 45건(광주 26건·전남 19건)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9건(광주 6건·전남 3건), 2021년 9건(광주 4건·전남 5건), 2022년 9건(광주 5건·전남 4건), 2023년 9건(광주 5건·전남 4건), 2024년 9건(광주 6건·전남 3건) 등이 다.

하지만 대부분 벌금 처분 25건, 집행유예 9건, 내사 종결·공소권 없음·기소유예 등 기타 4건으로 낮은 수준의 처벌에 그쳤다. 이중 5건은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이다.

소방기본법 제16조 2항을 보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라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저지른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사건은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14일 광주 북구 첨단지구 한 거리에서 구급 환자를 이송하던 119대원의 얼굴을 때린 5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체포됐다.

만취한 채 귀가하던 A씨는 업무 중 이던 구급대원을 목격하고 시비를 걸면서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10월 12일에는 전남 나주시 빛가람동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30대 구급대원을 폭행한 B씨(52)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사건 당시 만취한 B씨는 구급차 이송을 거부, 발과 주먹으로 119대원을 폭행했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자 소방당국이 구급대원에게 호신술 교육을 진행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광주 북부소방은 지난해 17~19일 김중성 바른체육관 관장 등 3명의 강사를 초빙, 구급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폭행 상황에 대비해 거리유지 및 방어기술을



교육계획

익혔다. 해당 교육에는 구급대원 73명이 참여했다.

광주 동부소방은 이달 5~7일 실전에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위협을 피하거나 제압할 수 있도록 설계된 방어 중심 호신술인 크라브마가(Krav Maga)를 체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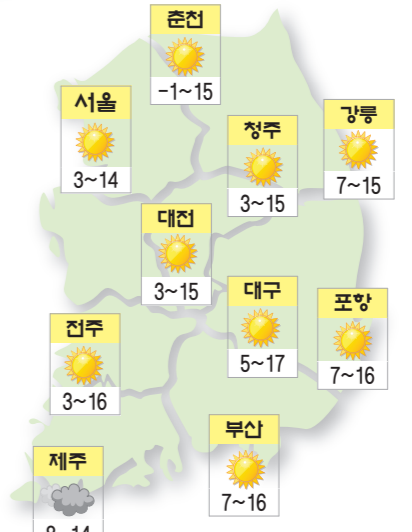
전남소방본부도 구급대원 폭행 예방 교육을 수시로 진행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엄중한 처벌로 사회에 경각심을 일깨워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병근 남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구급대원을 폭행하면 무겁게 처벌할 수 있는 소방기본법이 이미 마련돼 있다. 집행·기소유예에 대신 엄정한 사법처벌이 필요하다”며 “이러한 폭행은 곧 구급대원의 사기 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 피해는 시민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오늘의 날씨

예보 06:46 달출 17:44
해진 18:38 달진 06:17



광주	☀️	5~15
목포	☁️	4~12
여수	☁️	7~14
순천	☀️	5~17
구례	☀️	4~17
광주	☁️	4~15
임도	☁️	5~16
전남	☁️	5~10
고흥	☁️	5~16
진도	☀️	4~12

목포	밀물(고)	01:41 / 14:17
	썰물(저)	07:00 / 19:29
여수	밀물(고)	09:02 / 21:12
	썰물(저)	02:37 / 15:02

한밤중 화재로 대피 소동

○심야 시간대 광주도심아파트 세대에서 불이 나 소방이 진화에 나서.

12일 광주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2시28분 광주 서구 치평동의 한 아파트 1층 세대에서 화재 발생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당국은 20여대의 장비와 70여명의 소방대원을 투입해 화재 발생 10여분 만인 같은 날 오전 12시40분께 완전해.

화재로 세대에 거주하던 50대 부부 2명과 30대, 40대 여성 주민 등 총 4명이 병원으로 이송돼.

또 불이 번지면서 아파트 주민 58명이 자력 대피했고, 주민 57명은 소방 당국의 지원을 받아 아파트 밖으로 이동했다고.

경찰과 소방당국은 세대 내에서 충전 중인 캠핑용 배터리에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

윤용성 기자 yo1404@

만남, 당신에 이상형 바로연에서 인연을 만나다.

초혼·재혼 전문업체 바로緣 1644-5432/062.381.0009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자유로 173 대영빌딩 3층 (상무지구 롯데마트 옆)

광주·서구·국내·09·0005호